

# 로자 vs 일베 가상대담

AuroraAksnes

전에 누가 붉은오를 추천해줘서 듣고 필사해봄

양경규랑 정종권 가상대담으로 로자 대 일베

베(정): 위에서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궁핍함에 대한 반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노동계급의 이행은 단일하지도 않고 통일적인 계급투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혁명을 위한 계급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조건, 삶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활동을 해나가는 개혁 조직, 개량적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폄하 하나 부정으로써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중국적으로는 자본의 지배 영역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늘려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임노동자들이 중산층, 상층으로 확대되어 가고, 이런 계급들의 분화는 계급간의 갈등, 투쟁이 아니라 연대와 조화로 나아갈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자기 계급의 전통적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임금을, 충분한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지만 충분한 임금을 받는 한에서 그 임금이 그 노동력이 생산한 가치에 비해서 미달하나, 충족되나, 넘어서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해 고용주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노동자의 몫이 충분한 한에서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설사 분배가 5:5가 아니라 6:4, 7:3 등 불공정하게 보일 때조차도 일정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사회변혁의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구분이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특수한 구분보다 더 강하게 노동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른슈타인 사후 등장하는)스페인의 포데모스라고 하는 진보정당 같은 경우도 계급적 구분이 아니라 1%-99%를 말합니다. 극소수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구분을 이야기하는 게 진보정당의 어법, 수사가 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의 개혁, 개량적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역할도 있겠습니다.

로자(양):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간만에 하나 생겨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사회주의 혁명의 직접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 즉, 개량적인 조직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맞는듯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베른슈타인 동지가 노동계급을 정의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른슈타인 동지의 입장은 노동계급에 대한 규정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본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베른슈타인 동지는 노동계급의 문제를 빈부의 문제로 여겨 가난한 노동자만 노동자로 바라보고, 부유한 노동자를 자본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니다. 즉, 계급 문제를 계층 문제로 보고, 계층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노동 계급의 통일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생산 수단의 소유 문제를 거세하고 사회 계급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당연히 로-자 갈등과 대립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의 갈등이 봉합될 거다. 얘기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자본주의 갈등을 애매하게 사회 연대라는 이름으로 봉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죠. 따라서 이것은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부정하는 발언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을 집단화하고 이 노동력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파는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원리상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체제의 임금법칙을 철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노동조합의 최선은 자본주의적 착취,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에 따른 노동착취가 용인되는 한계점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착취를 철폐할 권력도 없고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수 없는 조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착취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생산 자체를 규제해서 자본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를 막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술진보를 막아야 하고, 생산규모도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진보가 기업주의 이익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도 확장되어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게 됩니다. 생산규모의 규제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 로-자 간의 카르텔에 불과하고, 이렇게 되면 같은 이해가 생기게 되므로 자본과 노동 간의 투쟁은 없게 되고, 결국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전체 소비자와 시민을 희생시키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하는 오히려 동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동조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노조는 결국 전체 사회체제를 자본의 이익을 복무하도록 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조라는 것에 대해서 단지 이윤의 공격에 맞선 노동력의 조직화된 방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조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 즉, 사회적 부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 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 사회 전체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윤추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체제의 작동방식을 넘지 못하면, 그 몫이 숙명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이익을 확장시키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를 바꾸는 데에 있어서는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변화시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베른슈타인 동지의 발언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논리적 구조를 보면 사실은 매우 허구적이며 빈틈이 많은 논리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로자(양경규)

(스까 사회주의로 사회주의 낙원이 올 수 있다는 일베의 말에 대하여)

베른슈타인 동지의 생각은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종국적으로 좌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량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사회발전을 진화론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노동조합의 투쟁과 의회활동과 같은 개량적 실천은 노동계급의 의식과 인식을 사회주의화하고, 계급으로 조직하는 데에서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베른슈타인 동지처럼 개량적 실천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운동 그 자체가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이야기하는 운동, 실천조차 힘을 잃고 노동계급 또한 그것에 대해서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결국 노동계급을 훈련시킬 수도 없게 됩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개량과 혁명을 바라보는 가장 과학적인 관점은 어떻게 당면의 개량적 실천과제를 궁극적인 목적, 혁명에 부합하도록 이끌까 하는 것입니다. 베른슈타인 동지는 시종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했습니다. 말하자면 개량은 괜찮고, 혁명은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면한 일상투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인식하고 개량적 실천의 과정에서 훈련되고 조직화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대중적인 투쟁을 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과 혁명이 이분법이 아니라 한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 목표를 하나 두고, 개량적 실천을 또 하나 두면서 그 둘을 종합해가려고 했던 에르푸르트 강령에 입각한 우리 독일 사민당의 현재의 활동 방향과 정책기조는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정당으로 선언하라!'는 것은 사회주의자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실현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변혁은 오랜 시간에 걸친 불굴의 투쟁을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실패할 수 있고, 격퇴당할 수 있습니다. 때이른 권력의 장악, 때이른 혁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때이른 혁명을 피해야 합니까? 때이른 혁명은 노동계급의 공격을 위해서 최종승리를 위해서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 됩니다. 때이른 혁명으로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노동계급은 보다 확실한 혁명, 보다 확실한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성숙을 노동계급으로서의 의식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른슈타인 동지가 사회개량주의의 레모네이드 몇 병을 부어서 쓰디쓴 자본주의의 바다를 사회주의의 달콤한 바다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 베른슈타인 동지의 생각, 이것은 정말 과거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고, 더 무미건조한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